



사회복지사업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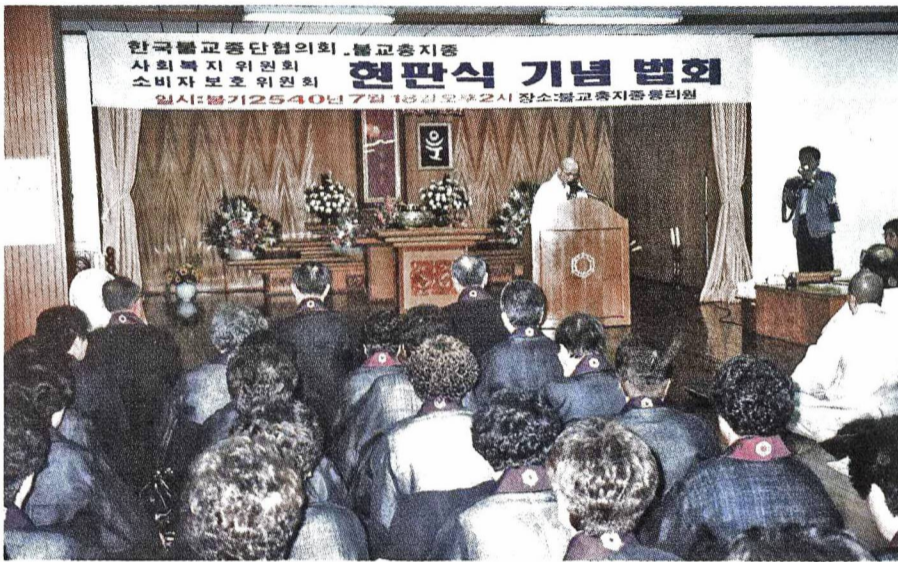
승단총회에서 결정, 실무는 '법인추진위' 일임

고려조 이후 백이 끊긴 정통밀교의 창조적 계승과 아울러 불교의 사회화, 사회의 불교화를 창조의 실천이념으로 삼고 있는 본 종단은 지난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충남 예산 가야호텔 회의실에서 전국 승직자가 참여하는 승단총회를 개최, 사회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 복지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종령 룡정님을 비롯하여 총지화 통리원장, 효강 법장원장 등 전국 승직자 80명이 참석한 이번 승단총회는 주요 안건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재단법인 불교총지종 유지재단의 재산 출연 및 사회복지법인 이사 선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신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현금으로 5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법인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은 종단의 사회복지법인추진위(위원장 총지화 통리원장)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종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승단총회에서 복지법인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 사회복지위원회 현판식 기념 법회 장면

그간 산발적으로 벌여오던 사회복지관련 사업이 신설법인을 통해 총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공립 복지시설의 수탁운영 등 활발한 사회복지사업이 가능케 되었다.

신설 복지법인의 명칭은 일단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으로

잠정 결정하였는데 법인추진위는 가능한 10월 이전 정부로부터 법인 승인을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 종단은 10년 전부터 종합학교인 부산 동해중학교에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의 특별분과위

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총지화 통리원장)와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 법장원장)를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1월 21일부터 실직자를 위한 지원시설로서 '오투기모임터'를 설치 운영하여 교계 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종단은 27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종단사에도 불구하고 창조 무렵부터 종조이신 원정(苑淨)대종사께서 이르신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이념으로 삼고 사회계몽과 사회복지의 구현을 주창하신 바를 따라 10년전 학교법인 대동학원을 설립, 종합학교로 부산 동해중학교를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 총북 괴산에 대규모 수련원을 건립 매년 하계 청소년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실로 혼탁한 사회를 맑게 거르는 사업에 앞섰다. 이번 신설 복지법인의 설립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관련사업을 벌인 성과를 총합 발전시켜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의 사회적 역할을 드높일 계획이다.

제18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지난 9월 8일 본산 총지사 및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



◇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장면

지난 9월 8일 오후 2시 30분 본종 총본산 총지사와 전국 36개 사원에서는 제18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를 봉행하였다. 총지사에서 봉행된 이날 불사에서는 종령 룡정 대종사를 비롯하여 서울지역 사원의 스승님과 신도 300여명이 참석하

여 종조님의 창종정신과 전법의 뜻을 되새겼다. 종령님의 추선사를 시작으로 종조님의 각령추선 사원과 생전 종조님의 육성법문 정법으로 진행되었다. 추선사에서 룡정 종령님은 "종조님께서 열반하신 휘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먼일들을 생각하니 추모의 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오직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시력으로 추복한다"고 하였다. 종조님께서 육성법문에서 "총지(總指)는 다라니, 총지(總持)로써 종생을 제도하고 가르치며 지도한다(指)는 뜻인고로, 다라니와 삼밀유가수행으로써 즉신성불하는데 용맹 정진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셨다.

진호국가불사를 통해 국난 극복을 기원...

국난극복 참회 대법회 제5차 대회 본종 부산 정각사 9월 23일 오후 2시

IMF로 인하여 국가경제위축과 실직, 가계파탄 등 나라와 가정이 커다란 위난에 처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참회 대법회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국민회의 연등회, 자민련 불자회, 한나라당 불자회, 군승단, 경승단,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등이 후원하여 종단협 회원 종단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매월 봉행하여 왔다.

지난 4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회에서의 「국민화합기원법회」를 시작으로 5월에 「파사현정실천철야참선정진법회」(조계종 수덕사), 7월의 「대참회 영산대재」(관음종), 「동체대비 구천철야관음정진법회」(천태종) 등 네차례에 걸쳐 봉행되었다.

이어서 국난극복 참회 대법회 제5차 대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본 종단의 주관으로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밀교종단으

로써 신라시대 이후 보여왔던 밀교의 호국정신과 정통의식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가 명실상부한 호국종교임을 널리 알리는 불사가 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守護國界主陀羅尼經)』에 근거하여 국민안 호국안민을 위한 『진호국가불사(鎮護國家佛事)』를 밀교의식으로 봉행한다. 이 의식은 금강계 대일여래와 4불, 4보살, 4대명왕, 4대천왕의 종지만다라를 봉존하여 수호국계 주지인 '유홍야호사'를 영송하는 의례인데, 본 종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49일간 이 불사를 올리고 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실직자 및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하여 가두성금을 모금할 계획에 있으며, 이 성금 전액을 행사 당일 지역의 실직자 및 결식 아동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불교와 밀교, 불교총지종의 상관성과 발전상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 개설작업과 맞물려 승단스승, 종무원 등에게 전자정보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도 잡혀 있어 첨단정보화의 시대에 발전하는 젊은 종단으로서의 면모를 활실히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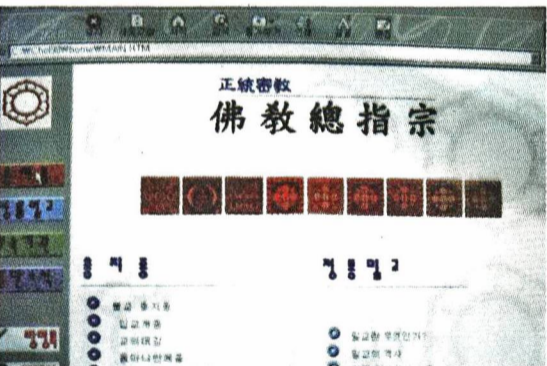
전자정보시대

종단 홈페이지 개설 작업중

인터넷 뱃목을 이용한 한국밀교의 세계화

첨단정보화시대에서 능동적으로 전통 밀교의 전파와 불교총지종의 활동상을

가상공간(cyber space)에 올리는 불교총지종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작업이 한창이다.



◇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초기 화면

후기산업시대에서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갖게 한 첨단정보화의 물결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정착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지역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시시각각 발생하는 세계의 모든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연결망(network)에 올리고 있는 인터넷은 첨단정보

화의 백미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포교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불교계는 90년대 중후반 들어 첨단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종무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에도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의 각 기관을 하나의 자체통신망으로 구축, 관리하는 근거리통신망(LAN)시스템을 지난 95년부터 개발, 도입하였으며 중앙종무기관을 비롯 산하 중요한 사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불교계의 정보화 성공에 고무되어 한국카톨릭 사목행정발전위원회는 95년 4월 2천년대를 준비하는 복음화 사업지원 관련하여 「한국가톨릭 종합정보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본 종단은 올해 초부터 전자정보화 시대의 종단발전 방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다가 지난 7월 중순 새로운 세기를 맞는 종단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종단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성의 제고를 여는 단초로서 일단 홈페이지 개설작업에 들어가기로 하여 현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곧 개설될 본 종단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buddhachongji.or.kr/>로 잠정 결정하여 등록을 추진 중인데 현재 e-mail은 [http://www.chongji@chollian.net](mailto:www.chongji@chollian.net)로 가능하다.

본 종단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종조님 법설을 비롯하여 밀교와 불교총지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각종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항목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

국난 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

- 전국 순회 제5차, 진호(鎮護) 국가기원 철야정진 -

부처님의 지혜로 국난 극복을
불자들의 원력으로 국민 화합을

호국불교 정신의 실천!

국난 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전국 순회 법회 5번째로 불교총지중에서 주관하는

'진호(鎮護) 국가기원 철야정진'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일시 : 불기 2542년 9월 23일 (수) 오후 2시
- ▶ 장소 : 불교총지종 부산 정각사
- ▶ 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 주관 : 불교총지종
- ▶ 후원 : 국민회의 연등회, 자민련 불자회, 한나라당 불자회, 군승단, 경승단,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 ▶ 문의 : 정각사(051-552-7901), 한국불교종단협의회(02-732-4885), 현대불교신문사(02-722-4162)

社說

지금이야말로 간절한 진호국가 정신이 필요한 때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도덕적 타락을 겪고 있다. 일부 부유층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한 과목에 무려 천만원대에 이르는 불법 교액과외를 서슴치 않고 시키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당장 자식들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내는 전대미문의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겨울부터 몰아닥친 이른바 국제금융시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참기 어려운 시련을 주고 있다. 혹독하리만치 악화된 경제는 2백만에 이르는 실직자를 양산하였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나아질 전망이 없다. 기업은 기업대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규모 인력감축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서민들의 가계는 그야말로 쥐어 찢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의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통분담의 대열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사회 부유층과 고통의 증집을 진 서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를 넘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민적 합심이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시로 국민국복을 위

해 원로마라톤선수를 비롯하여 일약 세계적 스타가 된 골프선수 등등이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가 의도하는 자긍심이든 자신감이든 그런 의지는 나날이 박약해지고 있다. 그 최대의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월등히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사회의 장래는 어둡기 마련이다. 단적으로 올 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폭동이 그 본보기일 수 있다. 무엇보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도덕적 불감증의 만연은 시급히 치유되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이다. 가계가 어렵다고 이혼을 그저 낫은 이와 해어지듯 쉽게 선택하고 게다가 자식들마저 무슨 집 덜 듯 훌쩍 때내버리는 세태는 우리 사회가 이제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마침 기상이변으로 얼룩진 여름을 보낸 이때 우리 종단이 주관하여 9월 22일과 23일 부산 정각사에서 국민국복을 위한 진호국가원철야정진과 대법회를 갖는다. 이 법회를 계기로 불자들이 앞장서 사회의 기강과 도덕성의 회복이 실현되도록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 실시 본 중단 9월 17일 탑골공원

IMF속에 갇혀가는 실업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기존의 기업들의 구조조정, 인원감축, 신규

사원채용 보류등으로 실업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불교계에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구제책을 할 수 없지만 미봉책이나마

총지종 전국신도회 결혼상담소 개설

서울·경인지구 신도회 9월 2일 개소식

지난 9월 2일 본 중단의 전국신도회 회의실 2층에서 결혼상담소 개소기념 불사를 가졌다.

통리원장님, 법장원장님, 서울경인지구 스승님들과 신도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개소 기념불사에서 전국신도회 경인지구 지회장 민해경 보살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성혼을 최우선에 두고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와 스승님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는 결혼 상담소는 경인지구 신도들의 자원 봉사로서 이루어진다. 성혼의 답례로 받게 되는 보시금은 오랜 숙원 사업인 양로원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전액 적립된다.

사실 상담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전국 신도들의 자녀부터 스승님들이 추천하는 사람 등 아는 사람들을 통해 중매를 하게 된다는 점. 그래

서 모두가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이 일반 불자의 경우에는 구혼 신청

이 대단하다. 전화를 하거나 전국

문 신도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겠다는 신도회 보살님들의 의욕이 대단하다. 전화를 하거나 전국



◇ 결혼상담소 개소식 불사

서를 꼼꼼하게 작성케 하고 면담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혼을 꿈꾸는 많은 선남선녀와 선녀의 자녀를

사원에 연락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2)550-0770 김해경기자

중국불교 대표단 초청 성지순례

중단협 주관 9월 17일 본 종 부산 정각사 방문

중국 불교 대표단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초청으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한국의 불교성지를 순례하였다. 이 행사는 지난해 중국측의 초청에 대한 우리측의 답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 불교간 상호교류 차원에서 성사된 것으로 앞으로 양국간 대표단 방문은 물론이고 학술·문화·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600여년의 양국 불교의 역사는 더욱 큰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교류는 1995년 이래 시작

된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 이후 본격화 되었다

이번 중국대표단은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의 송원주 회장의 예방을 시작으로 문화관광부 초청 오찬, 불은사 참배, 법주사 직지사 해인사 불국사 경주국립박물관 첨성대 석굴암 위덕대학교 통도사 태종대 본 종의 정각사 부산 삼광사 제주 관음사 용두암 여미지 식물원 천연지족포정방폭포 약천사 분취구 만장굴 성



◇ 부산 정각사를 찾은 중국불교대표단

음 민속촌 상산 일출봉 등의 순례로 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본 중단의 부산 정각사 순례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있었다. 김병규기자

동정/단신

'98추경및내년도 예산편성자료수집공고

본 종 통리원에서는 98년도 추경 예산 및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 편성자료 수집을 전국 사원에 일제히 공고하였다.

사원 전화번호 변경안내

일부 사원의 전화번호 국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선림사61국→261국, 수인사47국→247국, 단음사33국→333국, 수련

신도 및 신도가족들 가운데 사회복자 자격을 갖춘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요. ◆연락처:법장원 ☎ 3452-7485

원의회 및 종의회 연석회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 본궤도 진입, 8월 28일 괴산 수련원

8월 28일 괴산 수련원에서 총지종유지재단 이사, 중앙종회, 원의회 등 연석회의를 열고 복지법인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본 종 통리원은 제4회 경로법회(8.27~31) 일정 중에 원의회와 종의회를 별도 소집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설립의 구체적인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날 안건은 법인설립 자금의 출처 규모와 방식, 법인 임원의 선출이 주요 골자였다. 법인설립의 출자금은 포교비에서 현금 5억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임원은 본종 통리원과 법장원의 현직 스승님과 주요 전직 스승님들이 선출되었다. 임원 9명, 감사 2명이 선출되었다. 이사에는 총지화 통리원장, 효

강 법장원장, 총무부장 지성 정사, 재무부장 선도원 전수, 전 통리원장 청암 대정사(인천 지인사 주교), 전 통리원장 법공 대정사(대정 만보사 주교), 전 총무부장 경관 대정사(서울 관성사 주교), 전 총무부장 원봉 대정사(포항 수인사 주교), 전 재무부장 원송 정사(서울 밀인사 주교), 감사에는 대구·경북교구장 수성 대정사(대구 개천사 주교), 부산 경남교구장 의강 대정사(부산 삼밀사 주교) 등이 선출되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실무진은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설립신청서를 해당기관에 곧 제출할 계획이다.

수해의연금전달

본종 통리원에서는 지난 8월 22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수해민 돕기 성금 모금' 프로그램에 지성 총무부장이 출연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우리 회

사인 불교텔레비전(btn)에도 성금을 전달하였다. 그 이외에도 지역교구별이나 사원 단위로 공중파 방송과 언론기관에 성금을 내기도 하였다.

원 33국→333국, 화음사55국→755국, 운천사23국→223국, 단향사44국→644국

인사발령

김정희(정혜서원당, 법명:승효재):6월 11일자로 시무를 면함. 승직 '인사'에 명함.

이재호(기로원, 법명:시정), 강재훈(통리원, 법명:인선), 김양용(운천사, 법명:무공), 이국웅(밀행사, 법명:지공), 김기홍(총지사, 법명:지광), 최순일(정각사, 법명:경원), 구형수(자석사, 법명:정인) 등 7명을 5월 24일자로 시무(예비승)에 명함.

김양용(운천사, 법명:무공), 이국웅(밀행사, 법명:지공), 김기홍(총지사, 법명:지광), 최순일(정각사, 법명:경원), 구형수(자석사, 법명:정인) 등 7명을 5월 24일자로 시무(예비승)에 명함.

이상철, 최민희(통리원) 6월 5일자로 종무원에 명함

이양수(통리원) 6월 5일자로 종무원을 면함(결혼상 이유)

인터넷 기본상식

1. 인터넷이란?

인터넷(Internet)은 International과 Network의 합성어로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신망이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 전송하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WWW이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는 WWW서비스이다. 기존의 퍼펙트라는 개념을 이용해 연결해 인터넷에서 사용되던 서비스는 막강

하지만,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는데 이것을 해결한 것이 WWW(World Wide Web)서비스이다.

WWW은 HTML이라는 규약을 바탕으로 이미지나 텍스트, 그 밖의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WWW을 사용하면 CD-ROM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 WWW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들을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을 이용해 연결해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제10기 수강생 모집

21C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법회 지도교사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불교를 레크리에이션에 접목시켜 좀더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해서 불교 포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교육을 개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강의 개요

1. 대 상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레크리에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
2. 교육기간 : 1998년 9월22일(화) ~ 12월
3. 교육일시 : 매주 화, 목 오후 7시 ~9시, 매월 1회 토요일 특강
4. 교육장소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조계사 건너편)
5. 구비서류 :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2매
6. 개 강 일 : 1998년 9월 22일(화) 오후 7시
7. 참 가 비 : 30만원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포함)
8. 특 전 : ①월요강좌 참석 ②각종 이벤트 참가 ③2급 지도자 응시자격 부여(과정 60시간 이수자)

9. 교육내용

- 불교 레크리에이션론
- 심성개발 program
- 레크리에이션론
- 찬불가
- 음악(악보보기, 동요, 가요, 응용-싱어롱)
- 리더십
- 모임의 진행
- 프로그램의 작성
- 게임
- 레크리에이션이벤트(레벤트)
- 캠프
- 지도자의 자세
- 오리엔티어링
- 하이킹
- 만들기
- 춤(민속춤, 레크리에이션 춤)
- 전래놀이
- 종합실습

10. 문의 및 접수 :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사무국 종로구 관훈동 177번지 대형B/D 202호

☎ 02)738-7860, 730-7525 FAX 02)738-7863

☎ 온라인 접수-국민은행 023-21-0570-895(예금주 민병도)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결혼상담소 개설

불교총지종 전국신도회 경인지구지회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던 신도 무료, 양로원 설립을 위해 신도 자녀 성혼시키는 일(결혼상담소)을 설치하여 양로원 기금 조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혼을 위주로 성실히 일하고 있는 본 상담소는 회원여러분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할 것을 부처님께 맹세하며 선남·선녀들에게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남녀들의 "새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드리고 크게 보람을 느끼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요령

- ◇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청란에 인적사항을 기재, 사진을 꼭 첨부
- ◇ 소정의 입회비와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초본)를 제출후 상담
- * 상담을 마친후에는 희망하시는 배우자를 빠른 시일안에 보실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이런분은 받지 않습니다

- ① 교제나 팬팔을 원하는 분
- ② 뚜렷한 직업을 갖지 않은 남자분
- ③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남자분
- ④ 신병이 있는 남여
- ⑤ 허황된 사고방식으로 배우자를 택하려는 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종
전화 : 553-0770 / 팩스 : 552-1082

불교총지종전국신도회 한미음결혼상담소

밀교경전소개

이취경에 대한 考察

효강(법장원장)



이취경은 중기밀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金剛頂經의 일종이다. 진언 밀교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금강정경이란 18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설한 10만頌이란 매우 방대한 양의 경전의 총합을 말한다.

그 가운데 첫번째 경전은 「眞實攝經」으로 金剛智의 네권으로 된 번역권이 있고, 不空이 역경한 것이 세권으로 되어 있다. 이것들은 다 부분적인 번역으로 전체는 산스크리트어판과 티베트어 역으로 된 것이 현존하고 있다. 한역으로는 송대의 施護에 의하여 번역된 30권본이 전역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첫번째인 초회 금강정경을 말하는 것이다. 금강정경이 이 밖에도 제2회에서 제18회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이취경은 금강정경의 제6회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취경의 구성 또는 사상은 초회의 금강정경인 진실섭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般若經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야경의 공사상을 밀교

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정경의 적극적인 현실공성의 사상으로서 재구성한 경전이 이취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취경의 註譯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도 있다. 즉 '이취경은 반야경을 어머니로, 진실섭경을 아버지로 하여 태어난 경전'이라고 하고 있다. 이 경전의 성립 배경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 이취경의 종류

현재까지 알려져있는 것만 하더라도 산스크리트어와 중앙아시아 언어의 혼합으로 된 原典이 하나 있고, 티베트어역이 세 종류가 있고, 한역으로 된 것이 여섯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이취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취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를 갖춘 것이 현상이 7세기 중엽에 역경한 대반야 6백권 중의 제5백 78권에 해당하는 「般若理趣分」 한 권이다. 그밖에 7세기 말경 善提流

志가 번역한 「實相般若經」(한권)이 있고 金剛智 역의 이취반야경(한권으로 되어있다)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불공역 이전에 역경된 경전이다.

불공의 「大藥金剛不空眞實三摩耶經」 즉 「般若理趣經」은 서기763년에서 771년의 사이에 역경된 것으로 일본의 밀교종파인 진언종에서는 常用經典으로 삼고 있다. 그밖에 宋代의 施護가 10세기 말경에 역경한 「遍照般若經」(한권으로 되어있음)은 그때까지 한역된 어떤 것과는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아마 다른 산스크리트어원전에 의하여 역경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宋代 法賢이 10세기 말경에 역경한 「最上根本大藥金剛經不空三昧大教王經」은 7권으로 된 것인데 꽤 많은 분량이 증대한 이취경이라 말할 수 있다.

불공역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술이 많이 발견된다. 티베트어역본도 역시 방대한 양으로 된 것과 짧은 분량으로 된 것 등 여러가지 형태의 이취경이 전해오고 있다.

종조법설집

종조님께서 재세시 설하셨던 '법설'을 지면을 통해 되새겨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종조님의 법설을 교상과 사상편, 수행편, 집언(敍論)편, 밀교경 초역편 등 4편으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주>



종조 원정 선사 진영

제1편 교상과 사상 1. 밀교란 무엇인가?

1) 밀교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다 ①

경전의 종류를 소송, 대승, 밀교로 구분하여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소송에 속하는 장함경, 장부경전 중에도 대회경과 같이 밀교적인 것도 있고 파리어성전 가운데는 밀주(密呪)도 있다. 또 초기대승경전에 속하는 법화경은 다라니를 설했고 본연부에 속하는 방광대장엄경도 밀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밀교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밀교가 아닌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통력이나 주문 등은 밀교적이기는 하지만 밀교는 아니다.

정통적 밀교는 반드시 조직과 체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유사밀교이다. 바른 밀교는 인간과 자연계를 완전히 조화하여 파악한다. 특수한 것 가운데 일반성을 인식하고 개개의 류(類)에서 실현한다.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종속하는 것이다. 한 조각 풀잎에도 우주정신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밀교에서는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의 법신체(法身體)로 보고 육대연기(六大緣起)라고 하며 색심불이(色心不二) 즉 당상즉도(當相即道) 즉사이진(即事而眞)의 부정(否定)이 아닌 현실공성의 교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부처님 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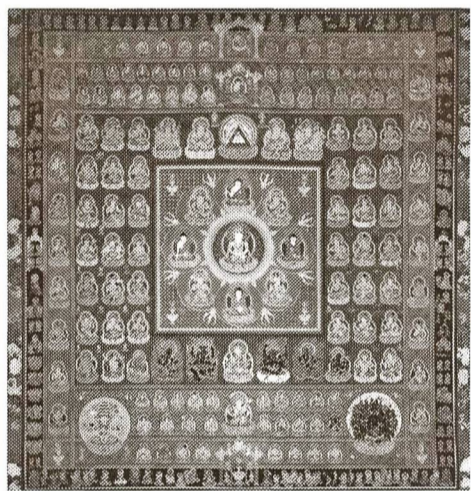
부처님은 우주 만물의 보편타당한 진리를 올바르게 참되게 깨달은 정등각자(正等覺者)이며, 또한 자유훈자이고도 자주적인 원만한 인격을 갖춘 위대한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흔히 인류의 스승이란 말로 표현된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참된 삶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일깨우기 위하여 여러가지方便을 사용하셨다.

이런方便을 불교 교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가지의 교화 방법을 크게 위외교화(威儀教化)와 설법교화(說法教化)로 나눌 수 있다. 위외교화(威儀教化)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감화를 주고 마음을 일깨워주는 방법이다. 말이 없으면서도 말로써 가르치는 것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이를 위외교화(威儀教化) 또는 상호설법(相說設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신 초전법륜지 바라나시의 녹아원에서 5 비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일들이 그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러 지어놓는 몸가짐이 아니다. 자연히 풍겨나오는 그 인격(人格)과 심덕(心德)의 발로인 점에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그저 흥내내에서 뿜어 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다라와 총지종의 사상(事相)

“만다라는 본중에서 이미 사용하여 왔다”

만다라는 밀교에서 가장 대표되는 신앙 상징물이다. 불(佛)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중생이 증득해야할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즉 불과 중생의 합일을 추구코자 하는 염원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일경』 권 제1 「입만다라구연진언품」에서는 '당래세에 지혜가 열등한 중생은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어, 오직 유상(有相)으로



태장계 만다라

생들은 형상이 없으면 진실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에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느끼게 하는 형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리 종단에 서는 만다라 건립의 필요성 내지

만다라 소개

통리원장 총지회 대전수

그 당위성을 자주 거론해 왔다. 이를 채택하자거나 또는 채택하지 말자는 단정적인 결론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단지 만다라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으며, 이미 종조님께서도 허용 채택하셨다는 사실을 몇 가지 실례로서 입증해 보고자 한다.

종조님은 「종조법설집」에서 만다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언급하셨고, 또 상·하반기 진호국가불사시에 「만다라관」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에서 만다라는 이미 우리 총지회에 있어 왔으며,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계속)

민족사관 <불교경전총서>는

불교경전

우리시대의 새로운 대장경입니다.

- 01 화엄경 김지건 역 값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 값6,500원
03 묘법연화경 이재호 역 값13,000원
04 금강경 정호영 역 값4,5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 값9,500원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심 역 값8,500원
07 정토삼부경 法頂 역 값6,500원
08 범망경·지장경 一指 역 값5,500원
09 과거현재인과경 혜원 역 값8,500원
10 백유경 현각 역 값6,500원
11 부모은중경(완음경·우만분경) 一指 역 값5,5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 값5,500원
13·14 아함경 ①② 돈연 역 값 1권 7,500원 2권 7,000원
15 법구경 석지현 역 값6,500원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 값7,000원
17·18 밀린다왕문경 ①② 동봉 역 (97년3월간행)
19·20 본생경 ①② 이미형 역 값1권 8,500원 2권 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무관 역 값6,000원
22 해심밀경 모주 역(근간) 값8,000원

* 법보시는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으로 합시다!

석지현 스님 에세이

바람의 길

시인이자 <선시감성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석지현 스님의 에세이!



석지현 스님의 에세이는 이 책 한 권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세이는 더 이상 쓰지 않을 작정이다. 그 이유는 이런저런 세속사들이 모두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보다는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 중생으로서의 지고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국판 270쪽/값 5,500원

한국의 전설적 선승 경허선사 이야기!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경허선사

鏡虛禪師

이홍우 지음

탁월한 선지, 막행 막식 그리고 질풍 같은 선승의 삶을 산 경허선사!

64세, 그의 만년은 뜻밖에도 유행지인 갑산 웅이방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훗날 스승의 입적 소식을 들은 제자 만공과 혜월이 그의 무덤을 파고 다시 다비를 했다.



어느 여름날 경허스님은 제자 만공과 함께 탁발을 나갔다. 하루종일 건다보니 다리가 아픈 만공이 쉬어가자고 졸랐다. 그 말을 들은 경허스님은 피를 하나 생각해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네의 볼에다 "쪽" 하고 입을 맞추었다. 순간 동네 청년들이 "저 중놈 잡아라" 고향치며 달려왔다. 스승과 제자는 걸음이 나 살려라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다. 단숨에 커다란 고개를 넘어 능선에 다다르자 스승 경허가 만공에게 물었다. "아직도 다리가 아프냐?"

신국판 288쪽/값 6,800원

경허선사의 생애를 은은한 필치로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필자 이홍우 씨는 오랫동안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와 논설위원을 지냈다.

불교개설 3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 가르침의 내용에 관해서는 자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나, 이것들 역시 불교의 한 단면이 불과하다. 그러므로 불교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불교'는 범어 '붓다 다르마(Buddha-dharma)'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붓다'를 불타(佛陀)로 음역(音譯)하여 줄여서 불(佛)이라고 하고, '다르마'는 법(法)이라고 의역(意譯)하였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불법(佛法)이 된다. 팔리어에서는 '붓다사나(Buddhasana)'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니, 이것은 불교(佛敎)라고 그대로 번역할 수 있다.

불법(佛法)이라 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신 법이라는 의미이고, 불교(佛敎)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원하고자 설하신 법과 가르침을 가리켜 불법 또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1. 불(부처님)의 의미

범어 '붓다(Buddha)'를 한문으로 음역하여 '佛陀·佛'이라 하고, 우리말로로는 '부처님'이라고 한다. 붓

다는 '깨달은 분'이라는 의미이며 한문으로 의역하면 각자(覺者)가 된다. 불교는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므로, 이미 깨달은 신 분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을 깨달은 분이라 하고, 불교를 깨달은 분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너무



◇ 붓다 열반상. AD 5세기경 굽타 왕조때 조성된 것

도 단순한 해석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온갖 공덕을 성취하신 분으로 그분이 갖춘 지혜와 복덕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여래십호(如來十號)라고 하여 열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공덕과 인격을 완성한 분이 부처님이다.

(1)여래(如來)(Tathāgata)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진리를 보여 주시고 가신 분

정리 : 대현(법장원 연구원)

이라는 뜻이다. 곧 여래는 진리와 인격이 합일된 진리의 체현자를 말한다.

(2) 응공(應供)(Arhat)

굳건한 신념과 용맹한 정진으로 번뇌를 모두 끊었으므로, 신(神)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로부터 공양과 존경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한다.

(3)정변지(正遍知)(Samyaksambuddha) 부처님께서 올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 말.

(4)명행족(明行足)(Vidyācarana-Sampanna) 부처님께서 천안(天眼)·숙명(宿命)·누진(漏盡)의 세 가지 밝음(三明)과 몸과 마음의 행업을 두루 원만히 갖추었다는 뜻이다.

(5)선서(善逝)(Sugata)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저 언덕

에 잘 이르렀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세계에 돌아와 윤회하지 않는다는 말.

(6)세간해(世間解)(Lokavit)

세상을 초월했지만 세상일을 두루 아신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7)무상사(無上士)(Anuttara-Purusa) 일체 중생 중에서 부처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다.

(8)조어장부(調御丈夫)(Puruṣadāmya Sārathi) 사람을 조여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로서, 부처님께서 크고 넓은 자비로운 마음과 뛰어난 지혜와 방편으로,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잘 이루어 열반에 들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다.

(9)천인사(天人師)(Śāstā Devamanuṣyānām)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말로서, 부처님께서 신과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해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서 번뇌로부터 해탈케 하는 스승이라는 뜻이다.

(10)세존(世尊)(Bhagavat)

부처님께서 온갖 복덕(福德)을 갖춘 분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수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중생들이 높이 받들어 모시는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으로 석가 세존, 또는 석존이라 한다.



육바라밀의 실천과 생활화 3

법공(만보사 주교)

전편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을 먼저 설하신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또 "보시바라밀"이 다른 5바라밀에 앞서 선행(先行)되는 당위성(當爲性)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바라밀에 비해 비교적 행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는 바라밀이 곧 "보시바라밀"의 공덕을 믿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바라밀이 곧 "보시바라밀"임도 알게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겠지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앎"은 한갓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사실 중생들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큰 허물이 있거든요. 때문에 예로부터 "알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知而行之難)",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도 80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등 등의 빗댄 말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 또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중생들이 다 생계를 통해 탐업(貪業)을 쌓아 간탐심이 굳어져 "내 것"이라 집착하는 착념(着念)이 업력(業力)으로 작용하여 그렇다 할 것입니다. 이 "업력(업력)"의 작용은 개체간(個體間) 다소간의 차이만 있을 뿐 중생의 신분에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이 혼습(混習)된 업력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고도 쉬운 이 "보시바라밀"을 어떻게 해야 잘 실천(行)해야 할까요? 중생들의 근원이 되는 삼업(三

業-貪·瞋·癡)중 탐업이 머리가 된데(貪業 爲首) 하루 아침에 탐심을 푼다고 보시행을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종조님께서는 이러한 중생의 병폐를 간파하시고 세간중에서 생활하며 수행하기에 적합토록 그 근거(根柢-교법을

보시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생활에서 수행하기 적합한 근거에 맞는 제반 실천법 실천

들고 닦아 얻는 능력)에 알맞게 제반 실천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총지종의 삼종재시(三種財施) 불교에서 말하는 삼종시(三種施) ①재시(財施) ②법시(法施) ③무위시(無畏施)를 말합니까만 "삼종재시"란 우리 총지종에서 행하고 있는 총지종 특유의 재시법(財施法)으로 입교하여 교도가 되면 가장 우선적(優先的)으로 주는 법(授法)이 바로 육자진언(六子眞言) 열송법과 삼종재시(三種財施)-희사법(喜捨法)입니다.

1. 절량희사(節糧喜捨)

절량이란 문자 그대로 양식을 절약한다는 뜻인데 곧 먹을 것을 절약하여 희사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남을 돕는 일 가운데 가장 손쉬운 법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한 술 한 숟갈 열 숟갈이 모이면 한 그릇 밥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 있듯이 한 사람에게 있어 밥 한 숟갈은 비록 적은 양이지만 열(十)이 모이면 많은 양이 되어 큰 것을 이룬다는 큰 교훈과 의미가 담긴 말

입니다. 그래서 "절량희사법"은 주부(主婦)가 매 끼니-조(朝)석(夕) 2때 혹은 3시(時)-밥 지을 때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쌀 한 술(匙)씩을 덜어내고 밥을 짓되 이 쌀을 일정기간 모았다가 불전에 공양미(供養米)로 올리는 희사법인데 여기에는 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하였습니다.

첫째- 식량(食糧)은 사람뿐 아니라 일체 유정(有情)들이 한결 같이 음식의 자량(資糧)으로 생명을 부지하는 가장 귀중한 물자(物資)로써 항상 꼭 있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생동안 끼니 걱정 없이 사는 이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고 굶주림의 고통에서 헤어 나지 못하는 이가 수없이 많으며 또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 생명이 수없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세계적으로 년간 기아(飢饉)선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7억명에 달함- 따라서 "인교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아고(飢餓苦)를 면치 못할은 다 과거 전세로부터 음식을 천대했거나 남용(濫用)한 과보일 것인바 평소 식량을 소중히 하고 내 몫으로 주어진 식량을 절약하여 널리 유정(有情)들에게 베풀게 되면 그 복덕과보(福德果報)가 클 것입니다.

경(經)에도 다른 '보시' 보다 식시(食施)공덕이 현세에도 과보(果報)가 가장 빠르다 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갖게 살펴보면 음식 인심 후한 사람이 식욕이 풍부하고 복(福)받고 사는 것이 역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불·교·문·화·재·소·식

경주 경희사지 석탑 도굴폐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국보 제40호 정혜사지 13층 석탑이 도굴범에 의해 훼손돼 문화재관리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탑 아래인 보조기단석과 옥개석 등이 훼손된 것. 도굴사실은 지난 9월 2일밤 탑 옆을 지나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번에 도굴된 정혜사지. 13층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유일한 13층 석탑이다.

지면부족으로 신행담은 다음호에 개재

한반도지역 '발해제국' 처음 발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처음으로 발해 절터가 발견되었다. 북한은 '민주노선' 최근호에서 함경남도 북청군 하호리 청해토성 서남쪽 10km지점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청해토성은 둘레가 2.132m나 되는 장방형으로 지난 1980년 발굴을 시작하여 왔다. 이 절터는 동서 약 200m, 남북 약300m 되는 곳에 4개의 건물터가 있고, 4각 탑터에서 청동불상, 돌부처 등이 출토되었다고 전했다.

중보편집장 김홍배 연구원 선임

지난 7월 11일부로 편집장이 교체되었다. 중보 제11호부터 신임에 법장원의 김홍배 연구원이 선임되었다. 신임편집장은 중보를 중단의

소식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중보 편집방향을 밝혔다.



밀교용어소사전

염송(念誦)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매일 염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염송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지만, 대체 염송이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염송이란 말을 보통 밀교에서 많이 쓰고 있다. 현교에서는 보통 염불이라 한다.

범어 'Guhyah'를 음역하여 '구해(瞿唵)'라 하고, 의역하면 '염송'(念誦-Guhyah Smriti)의 뜻이 된다. 즉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念), 입으로는 불보살의 진실한 말씀을 독송한다(誦)'는



◇ 염송하는 모습

뜻이다. 이에 비해 염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염송은 염불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즉 염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의 진실어 불망불이의 말씀(진언)을 구송(口誦)하는 것을 말한다.

<염송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부도덕한 효성바스프를 고발합니다.

주식회사 삼우화학은 1987년에 창업한 회사로서 유아용 기저귀 원단 및 여가용 휴대 테이블을 생산, 내수 및 수출로써 1995년 기준 187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유아용 기저귀 원단은 당사가 수십억원의 개발비를 투자,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여 연간 4000만불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개가로 1994년에 경제기획원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성공사례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1992년 부터는 문경지역 탄광폐광으로 인한 유휴 인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휴가용 휴대 테이블을 생산하여 거의 전량(연간 500만불 상당)을 수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가용 휴대테이블이 원료를 제공하던 효성BASF에서 96년 1월 2월사이 본 삼우화학에 납품한 원료가 문제가 되어 그 원료로 만든 수출품에 심각한 하자 발생,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문제 발생 직후 효성바스프 측은 책임의 일단을 시인하는 대책서를 본사에 보내 양사가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는 적하였으나 그후 태도를 바꿔 차일피일 보상의 책임을 미루어 결국 본사는 엄청난 피해를 감당치 못해 부도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효성BASF는 효성그룹의 계열사이며, 세계 굴지의 화학업체인 독일 BASF의 합작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화학업계의 선두주자를 자칭하는 기업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올린 것입니다. 대기업의 이런 횡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국제금융시대를 맞아 효성바스프 역시 자신들이 올린 과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마저 위태롭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말미암아 쓰러진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은 덮어두고 '효성'의 생명력만 유지하려 한다면 이후 또다른 중소기업을 울리게 될 것은 명확합니다.

저희 회사는 효성BASF에서 공급했던 원자재의 결정적인 품질하자로 인해 20여억원의 수출오다 취소로 인해 엄청난 자금경색에 몰려 부도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되었고, 수십차례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효성BASF측은 이 크레임을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인즉 부도 후에 알게 되었지만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를 기만하여 결국은 도산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그때 조금이라도 성의만 보였어도 저희 회사는 도산이라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효성BASF측은 1996년 3월 12일자 대책에서 96년 1~2월에 공급한 원자재가 다소 STIFF한 쪽으로 치우쳐서 내충격성이 저하되었다고 크레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자재 교환으로 그 모든 책임에 대한 보상은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면 애초에 보험으로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고, 피해 손실액에 대한 정확한 손실금액을 요구한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저희가 부도후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있는자들의 여유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모든일이 명확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에게 돈도 시간도 없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환자가 죽고 나서 처방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 추신 : 대기업으로 부터의 부당한 횡포로 인하여 도산하였거나,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오투기 모임터에서 연합하여 대기업의 횡포에 적극 대응 합니다.

망의 전화 : 효성바스프 본사 02-707-6603
격려 전화 : 오투기모임터 02-3452-7485~6(실직자를 위한 쉼터임)

한국불교의 고승

신라의 원호대사

1600여년 동안 숨쉬어 온 한국불교. 한국불교에는 많은 선각자가 계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이에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고승들을 되새기며 수행에 있어 더욱 용맹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주>

원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불교사상가이자 학자이며 사회운동가였다. 그의 경론에 관한 연구는 불교학의 모든 분야에 걸친 것으로 총 1백여부 2백4십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었다. 그는 어느 종파에 구애됨이 없이 "만법이 일불승에 총섭되어야 하는 것은 마치 대해 중에 일체 중류가 들어가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하여 대(大), 소승(小乘), 성(性), 상(相), 돈(頓), 점(漸)의 상호 대립적인 교의를 다 융화하여 일불승(一佛乘)으로 귀결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모든 사상가들의 서로 다른 쟁론들을 화합시킨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이것이 바로 화쟁이다. 원호의 화쟁사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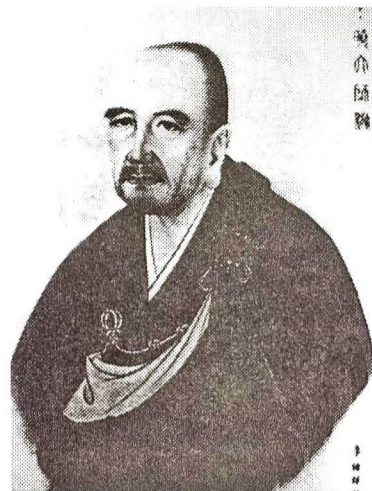
실생활면에서 진속일여(眞俗一如)를 주장하면서 불교를 생활하는 불교 대중화운동으로 전개시켰다.

1. 出生

원호는 신라 26대 진평왕 39년(서기617년)에 현재의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서 태어났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호의 어머니가 하늘의 별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수태를 하게 되었는데, 그를 낳을 때에는 오색의 구름이 하늘을 가리웠다고 한다. 또 그의 어머니가 만삭이 되어 집 근처의 밤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해산하게 되었다 하여 그 이름을 寶幢이라 하였다.幢은 속어로 '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출생은 마야부인이 룸비니동산에서 신타르타 태자를 출산하였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의 출생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묘사한 것으로 원호를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일시하였음을 강조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2. 佛敎修學과 大衆敎化

「송고승전」에 보면, 그의 나이 10 여세에 벌써 출가하여 여러 스승 아래서 수학하였다고 한다. 남달리 박식다문하여 불법의 깊은 진리를 一悟하였으며, 종파와 대·소승을 불문하고 여러 불교교리와 사상을 섭렵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대중들에게 불교를 일상화시키므로써 불교를 의지처로 삼게 하였다. 그 대표 되는 수행방편과 포교정신은 바로 화엄경의 "모든 것에 걸림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도다"라는 구절을 노래로 지어 부르면서 널리 서민들에게 불법을 흥포하였다. 이것은 바로 진속불이(眞俗不二), 진속일여(眞俗一如)의 실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眞과 俗이 별개의 것이 아니요, 眞 가운데 眞이 구현되는 불교의 진수를 몸소 실천한 위대한 실천운동가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호대사

교학에 있어서는 망라되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 화엄, 유식, 율장, 정토 뿐만 아니라 밀교에 이르기까지 초인간적인 수학과 저술활동을 보여 주었다. 특히 정토의 미타사상에서는 그의 불교대중화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 특히 그의「십념론(十念論)」을 보면, 일상생활의 모든 선행이 바로 극락왕생을 위한 수행이라고 한 점에서 미타정토신앙을 서민들에게 가장 쉬운 포교방편으로 제시하였음을 보여주며, 그의 불교생활화, 대중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원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학과 실천의 생수를 보여 주고 있다.

밀교개론 8

제재에서 석불로

효강(법장원장)

불교교단에 소속한 출가수행자들이 인간 이상의 어떠한 힘에 의해 세속적인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석존에 의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도들이 일찍부터 주적인 행위와 의례를 행하였던 형적이 인지된다. 현재 남방불교권에서 주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리타'도 그 하나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변형되어 밀교경전 속에도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면 독사의 해를 방지하는 '모라파리타'가 '공작경'으로 아차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그 괴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아타나티아주가 '비사문천왕경'으로 발전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기능적인 면에서 파리타와

땀게 보면 그러한 면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 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중불교의 신앙을 2000년 동안 내려 오면서 지탱하고 그것을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확산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경전을 독송



대장만다라의 중대팔엽원

하고 베껴 쓰고 인쇄 출판하고 보지 하는데 의한 제재신앙이었음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불교가 동아시아의 각지역으로 전파된 초기의 경전 자체가 독송의 공덕을 열거한 것이라 해도 좋을 만큼 경전의 독송이나 서사의 공덕을 강조한 금광명경이 각국에서 비상한 관심 속에 유행하였던 것도 불교의 이식에 있어서 민중의 기대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짐작케 해주고 있다.

대승경전의 독송에 의한 제재신앙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진실어가 재앙을 막고 복을 불러 오는 공덕을 지녔다는 신앙과 관련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진실한 언어 그 자체에 해당하는 부처님이 지닌 주력에 의한 제재도 뿌리 깊고 강하게 신앙되어 왔다. 과거 칠불, 즉 비바사불, 시기불, 킨 가장 큰 원동력은 경전을 독송 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등의 명호를 외듯다든가 다라니를 외우는 것으로서 여러가지 제앙을 타파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 법화경 본문품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여 위난을 면하는 관음보살의 구제신앙도 대중불교에서는 성행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그것은 계속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교도가 본래의 목적에 더 첨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자각하면서도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받아들였던 파리타나 주문 또는 대중불교 사이에 독특한 신앙으로 이어진 경전독송 보살의 명호염송, 그 위력에 의지한다는 청명, 이들은 어느 것이나 현재이익에 대한 대중의 열렬한 욕구표출이라 볼 수 있다.

다라니도 또한 같은 정신적인 기반 속에서 성정육성되고 그것을 입으로 외우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안녕과 행복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학술·세미나

제1회 한국정토학회 세미나 '현대사회와 정토신행' 주제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는 9월25일 동국대학교 학림관(사법대학) 소강당에서 '현대사회와 정토신행'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정토학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동아대 강동균 교수의 '정토사상', 동국대 한보광 교수의 '만일염불결사', 동국대 홍윤식 교수의 '정토예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중국불교2천년기념 국제학술회의 10월12일~15일, 중국불교협회주최

중국불교 2천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중국 강소 무석시 영산풍경구에서 중국불교협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다. 중국,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참가

하는 이번 회의에 한국대표로 동국대 명예교수인 오형근 박사(불교학)가 '달마선과 유가행 선의 관계' (가제)라는 논문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정태혁박사 논문출판기념강연회개최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는 9월 15일 오후 5시 동국대 문화관 그림에서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 (민족사 刊)이란 주제로 논문출판 기념강연회를 가졌다. 논문집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은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등 정태혁 박사의 제자들이 뜻을 모아 펴낸 것으로 올해 76세를 맞은 정태혁 박사의 생애와 학문활동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다. 동국대 재직 이래 집필했던 논문 24편을 3부로 나눠 수록하고 있다.

신간안내

불교대사전 上·下 출간

홍법원서 10년 동안 조사연구

도서출판 홍법원은 '불교대사전 上·下'를 출간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용어를 실고 있는 사전은 1988년 홍법원에서 출간한 「불교학대사전」이었다. 그러나 32,000개의 단어를 실고 있는 기존사전은 찾는 단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독자들에게 아쉬움을 주어 왔던게 사실. 이에 홍법원은 88년 불교학대사전을 내자마자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바로 편찬작업에 착수하여 10년간의 조사연구 끝에 완간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사전의 특징은 현대어로 쉽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 원어를 표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일 만하다. 5,000여 개의 용어를 수록한 이 사전의 가

격은 상하권 220,000원. 홍법원은 이번 불교대사전에 이어 앞으로 밀교사전과 인명사전도 출간할 계획에 있다.

붓다가 가르치지 않은 것

팀워드 지음 나종근 옮김

캐나다 작가인 팀워드의 자서전적 구조소설이다. 작가는 태국 동북부의 소승 불교사원에 머물면서 겪은 내적 갈등과 수행과정을 흥미 있게 기술하고 있다. (드림북스, 가격 8,000원)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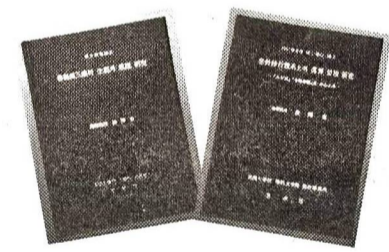
이 책은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출가·성도·열반·사리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전 생애를 전하고 있는 전기「붓다차리타」의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우리말로 번역

한 책이다. 「붓다차리타」는 산스크리트본으로는 13장까지, 티베트본과 한역본으로는 완벽하게 28장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경전은 모두가 한문본이고 산스크리트 원전에 충실한 한글번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동방불교대학장인 정태혁교수가 2년여의 작업을 걸쳐 완성한 것이다.

정태혁옮김(여시아문) 가격 9,000원

본 중 중미생 석사학위수여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본 중의 법장원에 근무하



는 중미생 이종석, 김홍배는 '97 학년도 후반기 학위수여식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들은

문은 「선무의 삼장의 생애와 사상연구」(이종석), 「밀교 수행체계상의 진언 위상 연구」(김홍배)이다. 이들은 지난 95년 8월에 입학하여 2년간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불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불서 결정판!



통일불교성전

불교의 주요 경전을 엄선하여 교계의 권위 있는 필진이 우리말로 편찬한 범회용 최적의 불서. 초심자는 물론 원숙한 불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지니고 읽어야 할 신행생활의 길잡이. 927쪽/10,000원

청소년불교성전

청소년들이 불교의 진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과 문헌들을 엄선하여 우리말로 편찬. 청소년들에게 참다운 인간형성의 길을 제시한 청소년용 범회 교재. 608쪽/5,000원

계간 '불교와 문화'

불교계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간되는 종합학술정보지로서 시론, 논단, 기획특집, 강좌/세미나, 교계보도자료편람, 불교관련 방송비평, 한국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 교계 주요 행사 일정 등으로 구성. 각호/8,000원

통일불교성전 설립지침서

통일불교성전에 수록된 각 경전의 해제와 교리개관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통일불교성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범회시 불교의 핵심을 보다 명쾌히 설명할 수 있도록 편찬. 465쪽/10,000원

韓國佛敎總覽 98년판

1천 6백년 한국불교의 현황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불교계 최초의 종합자료집으로 총론(역사/현황/국체), 자료(종단/법인/단체기관), 목록(인명/사찰/불교문화재/불교도서논문), 법령(불교관계법령), 연표(한국불교사연표) 등으로 구성. 1,000쪽/120,000원



어린이 포교의 방향 제시

독립체계의 자성학교설립과 지속적인 포교 활동 시급

여름 어린이 수련대회를 마친 뒤 어린 불자들을 어린이 법회인 자성학교로 모이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종단에서는 여름 수련대회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련대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자성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어린이들

이러 할지라도 서원당이 아닌 곳에서 마음껏 떠돌고 놀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사원을 지을 때 자성학교의 공간은 있어도 아직 자성학교가 개설된 사원은 별로 없다. 선생이 없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귀찮아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 지난 7월에 개최된 어린이 여름 수련대회 모습

어린이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자성학교가 없는 사원이 많았다. 만약 자기 사원에 자성학교가 있다면 다니겠냐는 질문에 꼭 다니겠다는 어린이들도 많았다. 여름에만 하는 수련대회에 잠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어린이들도 지속적으로 절에 나와서 재미있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한다.

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나오는 어린이

회에 단 한 명도 보내지 않는 사원이 많은 것이다. 또, 우리 보살들의

자녀만을 포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니 자성학교가 없는 것이다.

동네 아이들을 우리 자성학교로 오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도가 되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쓸 줄만 알았지 그것을 채우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텅텅 비어가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어린이·청소년 포교국이 독립되어 늘 그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성학교 선생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어린이 교재를 만들고 배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더 늦으면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아이들을 우리 절 마당으로 불러들이는 일, 종단 모두의 생존이다.

김혜경기자

충지중 하계 수련법회

제4회 어린이 여름수련법회

7월 21일~23일 부산 정각사

본 종 통리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4회 어린이 여름수련법회를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하였다.

래동요배우기, 둘째날 친불가 배우기, 놀이마당, 수영, 레크레이션, 모듬별 장기자랑, 모닥불놀이로 마지막밤을 보내고, 삼일제는 시상식, 소감문 쓰기로 2박 3일간의 행사를 마쳤다. 이번행사는 전국 사원에서 120명의 자성학교 어린이들이 참석하였다. (김혜경 기자)

청소년 여름수련법회

제8회 여름학생 수련법회, 제1회 종립동해중학교 수련법회
7월 27일~29일, 7월 30일~8월1일 충북 괴산 수련원

본 종 통리원은 제8회 여름학생 수련법회와 제1회 종립 동해중학교 학생수련법회를 충북 괴산 수련원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각각 2박 3일간 개최하였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첫째날 달빛산행을 시작으로 죽비소리, 총지 한마당, 법

회, 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죽비소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요즈음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IMF의 사회문제를 주부, 교수, 공무원, 정치인, 학생의 배역을 맡아 각각의 입장에서 토론하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1차 100여명, 2차 250여명의 학생 법우들이 참가하였다. (윤승호 기자)

제3회 경로법회

8월 27일~31일 괴산 수련원

본 종 통리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 까지 충북 괴산 수련원

에서 제3회 경로법회를 개최하였다. 나라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특히 노년층의 소외감과 허탈감은 더욱 깊으므로 이를 치유하

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로효친사상에서 생각해 볼때 간과해버릴수 없는 인간 심성과 도리의 문제라는 점에 승단 전체가 인식을 같이한 것에 개최동기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예년처럼 1회에 그치지 않고 거리와 인원을 고려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8.24~26)는 부산·울산·경남지역, 2차(8.26~28)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기, 경북, 충청, 전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행사일정은 법회를 시작으로 고전무용공연, 건강요법강의, 연예인 초청공연 및 장기자랑 등으로 치루어졌다. 행사를 마친 후 귀향길에는 지역별로 유적지를 관광하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1,000여명의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김병기기자)

불교실학

화 잘내는 사람

백유경

사람들이 방안에 모여 어떤 사람의 덕망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모두 훌륭한데 두 가지 단점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곧잘 화를 내지.”

“매사에 경솔한 것도 흠이야”

사람들은 제각각 어떤 사람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문밖을 지나다가 그 말을 들었다. “뭐라고?” 발카 화가 난 그 사람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렇게 말한 사람의 목살을 움켜잡고 주먹질을 해댔다.

“아, 이 사람아. 왜이러나 참게.

응? 자네가 참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뜰어 말리며 말했다.

주변 사람이 겨우 겨우 말리자 그 사람은 씩씩대며 “내가 언제 화를 잘내고 매사에 경솔한 말이오?”

이 사람이 그렇게 터무니 없는 말을 하니까 때린 것이 아니요.” 하며 말을 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이 한 짓이 바로 화를 잘내고 경솔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얼굴이 벌겋게 되었다.

남이 자기 허물을 말 할 때 원망하거나 성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 허물 듣기를 꺼리며, 남에게 비난을 들으면 화를 낸다.

여름수련법회를 마치며...

이번 수련법회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던데에는 실무자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다. 두 행사의 진행을 맡았던 통리원 윤승호, 법장원 김혜경 두 교무를 만나 본다. [편집자주]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윤승호 <청소년법회 실무자> 인터뷰 김혜경 <어린이법회 실무자>



‘제8회 학생수련법회’ 및 ‘제1회 종립 동해중학교 학생수련법회’의 산파역
윤승호 교무

-수련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심어 주고자 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본 대회를 진행하면서 실무자로써 얻은 교훈이 있다면?

▶이제까지는 진행방향을 맡아 왔는데, 막상 본인이 직접 진행을 맡아보니 그간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으나 역시 신세대 학생들의 선호도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회에는 학생들에게 맞는

학생들에 맞는 눈높이 교육 프로그램개발 시설보강 법회의 다양화 꾀해야

포교차원의 행사가 필요 어린이포교 담당자 양성 어린이포교 전담기구 필요

프로그램개발, 즉 눈높이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학생수련법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종단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종립학교 학생 수련법회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독자투고

귀 종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저는 불교신자도 아니고 더구나 총지종의 신도도 아니지만 귀 종단에 친지가 있는 관계로 종보를 관심있게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간의 종보를 보노라면 총지종을 제대로 아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행사 일

지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또한 우리 종단의 불공법 하나라도 제대로 익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점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법회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거나 아쉬웠던 점은?

▶그 동안 어린이 포교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나름대로 받아왔으나, 막상 준비를 해보니깐 간단할 것 같고 쉬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어린이 포교와 관련하여 종단에 바라고 싶은 것은?

▶당장의 행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먼저 어린이 포교 전담 기구를 만들고, 어린이 포교 전담 스승님, 교무를 정책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대승불교연구원 제2기 불교 교리 강좌 수강안내

대승불교의 이념을 실현하는 본 연구원은 정신세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불교 심리학과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교과목과 수강 시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일시: 1998년 8월 1일(토) ~ 1998년 10월 30일(토) - 3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 수강장소: 서울 중구 목정동 18-27
대학문화원 교육관 (엠버서더 호텔옆)
3. 강사: 오 형근박사 (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4. 수강시간 및 교과목
 - 1) 1교시 - 오후 2시~3시20분
교과목: 기초교리특강 (원시불교와 소승불교 대승불교)
 - 2) 2교시 - 3시 30분~4시50분
교과목: 불교 심리학 (唯識學)
 - 3) 3교시 - 오후 5시~6시10분
교과목: 船若心經 및 唯識三十頌

주소: 서울시 중구 목정동 18-27 대학문화원 교육관 520호
전화: ☎ 264-7120

대승불교연구원

btn 연꽃예술마당 - btn 좋은 프로그램만들기 캠페인

2천만 불자님들의 힘을 모아 불교텔레비전 btn을 꽃피워 주십시오

btn이 개국 4주년을 맞아 btn 좋은 프로그램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캠페인은 IMF시대를 사는 불자님께 작으나마 힘을 드리고, 다가오는 21세기 거룩한 부처님 나라로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캠페인인 btn 연꽃예술마당을 전국 10대 도시 및 중요 도시를 순회하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캠페인이 진정한 우리 문화 화합의 장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포교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천만 불자님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 * 좋은 프로그램만들기 후원회비는 1구좌당 10,000원 입니다.
-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거래은행: 신한은행 · 예금주: 불교텔레비전
 - 구좌번호: 334-05-011307
 - 은행과 우체국에 비치된 MICR 지로용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로번호: 7614677

불교텔레비전 32 btn 문화사업단

대승불교연구원 제2기 불교 교리 강좌 수강안내

대승불교의 이념을 실현하는 본 연구원은 정신세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불교 심리학과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교과목과 수강 시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일시: 1998년 8월 1일(토) ~ 1998년 10월 30일(토) - 3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 수강장소: 서울 중구 목정동 18-27
대학문화원 교육관 (엠버서더 호텔옆)
3. 강사: 오 형근박사 (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4. 수강시간 및 교과목
 - 1) 1교시 - 오후 2시~3시20분
교과목: 기초교리특강 (원시불교와 소승불교 대승불교)
 - 2) 2교시 - 3시 30분~4시50분
교과목: 불교 심리학 (唯識學)
 - 3) 3교시 - 오후 5시~6시10분
교과목: 船若心經 및 唯識三十頌

주소: 서울시 중구 목정동 18-27 대학문화원 교육관 520호
전화: ☎ 264-7120

대승불교연구원

종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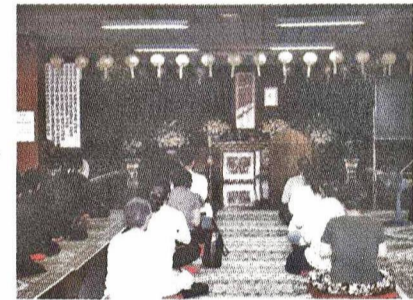
중국불교대표단 초청 민선



중국불교대표단 한국방문 환영만찬이 지난 9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9일간의 '중국대표단 한국성지순례'에 앞서 열린 것으로 일정중에는 '국난극복 기원대법회' 제5차대회를 주관하는 본종의 부산 정각사도 순례하였다. 만찬회에는 본종 총지화 통일원장, 효강 법장원장 등 종단협의회 회원종단 대표자와 교계인사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행사주관 종단의 대표자로서 '국난극복기원 참회대법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호국불교로서 본종단의 진호 국가불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총지화 통일원장은 "우리 종단은 종조님의 뜻에 따라 창종 이래 27년 동안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의거한 진호국가불사를 올려왔습니다. 전종도가 해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각49일동안 매일 불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회에서 호국불교, 정통불교의 진수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간 신문사 기자 7명이 참석하였다.

종단연인 대불사 원만회향 기원법회



본종 통리원·법정원은 종단연인 4대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는 법회를 총본산 총지사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령 특정 대중사를 비롯하여 주관부서장인 효강 법장원장과 총지화 통일원장, 서울 경인지역 스승, 종도, 대불사참여자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난극복기원 대법회 관련 기자간담회



본종 통리원장 총지화 대전수는 국난극복기원대법회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4일 12시 일간신문사 기자들이 모인

불교텔레비전 강남지사 개원

지난 8월 31일 불교텔레비전 문화사업단은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경목빌딩에서 강남지사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사장 정우스님을 비롯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우스님은 격려사에서 "화장제도는 불교전통의 장례문화로서 국토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화장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강남지사는 앞으로 영묘사업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케이블 TV업계 판도 변화

앞으로 케이블 TV 관련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다름아닌 채널티어링제(시청자의 기호에 맞는 케이블TV방송사를 3~4개 한데 묶어 한 개의 채널군으로 편성하여 전송하는 제도)와 케이블 TV사의 업종변경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민회의는 당정협의를 거친 후 경영부실과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케이블 업계의 회생방안으로 이를 발표했다. 기존에 실시해왔던 전체널 의무전송 규정을 폐지하고 1사가 다수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적자생존'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국 이를 통해 케이블방송계의 구조조정을 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그러나 의무전송규제가 폐지되면 시청률이 높고 장사되는 방송사는 큰 힘을 실게 되지만, 시청률이 저조하고 광고수주가 낮은 종교TV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종교채널이 정신교화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전체널 의무전송을 예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BBS '거룩한 만남' 우수작품상 제25회 한국방송대상 수상

불교방송의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이 9월 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5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제35회 방송의날 기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거룩한 만남'의 진행자와 제작팀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 200만원 전액을 불교방송에 기탁했다.

BBS, 가을 향기 프로그램 풍성 '가을노래, 추억의 노래' 등

불교방송은 청취자들을 위한 가을특집 방송을 9월 한달 동안 실시한다. 가을을 담은 노래를 중심으로 마련된 특집프로그램은 '가을노래, 추억의 노래', '가을의 향기는 언제나, 테마가 있는 음악 산책' 등 3개 프로이다. 9월 16일에서 18일까지 방송되는 '가을노래, 추억의 노래'는 가을에 과련된 추억담과 노래들이 소개되고,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가을의 향기는 언제나'는 영화음악의 테마특집프로그램으로 가을의 향기를 물씬 풍기게 된다.

9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테마가 있는 음악산책'이 장르별 음악과 함께 가을이야기로 청취자를 찾아간다.

CATV 사전심의제 폐지

종합유선방송에서 광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 사전심의제가 폐지된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발표하면서 9월 1일부터 광고방송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율심의의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2. 총지종의 종조 27. 뒷장의 재료. 풍으로 만들지요 28. 혜초스님이 쓴 인도기행기

- *10월 30일까지 총지종보 퍼즐마당 담당자 앞으로 관제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요
-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방송·연예

김성녀씨 불교음반 발표

독실한 불자연예인인 김성녀씨가 '갈피리 노래소리'(이동수 작곡, 정경천 편곡)를 타이틀 곡으로 한 앨범을 발표. 김

이강백의 문학성을 연극으로 '동양적인 회귀, 삶과 예술에 대한 성찰'

'느낌, 극락같은' 제공연

제22회 서울국제연극제 초청작 / 9월 18일~24일 문예회관

제22회 서울 국제 연극제에 초청되어 한국 연극을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은 '느낌, 극락같은'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 '느낌, 극락같은'의 공연 한 장면

이 작품은 이강백이 쓰고, 문화게릴라로 불리는 이운택이 연출했다. 불교적인 명상음악과 12명의 코러스가 펼치는 불상 무리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특히 목각, 채색불상, 금동불상, 토우, 들판의 불상 등을 연기할 코러스들은 캐스트들과 함께 장관을 이룬다.

이 연극은 '불상 제작을 하는 두 주인공이 집착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육체 속에 정신을 담아 놓을 수 있을까? 정신이 외파로이 육체를 떠나 존재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은 완벽한 불상의 형태미에 집착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상에 담긴 부처의 마음에 집착한다.

형식이나, 내용이나를 주제로 삼은 불상 등을 연기할 코러스들은 캐스트들과 함께 장관을 이룬다. 각양각색의 불상들의 표정과 형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이로움까지 느끼게 한다. 그 경이로움을 직접 느껴보는 것도 가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 공연문의 : (02)741-7853

◆ 공연시간 : 매일4시 30분/7시 30분

항기를 찾아서...

경주 '마하연' 전통찾침

경주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 찾침. 경주의 인사동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전통찾침

경주 노서동 고분 아래 2층집

'마미연'

경주 국광사학살생회출신주인

이 많이 자리잡고 있지는 않지만 찾침 내부의 분위기는 서울의 인사동 골목보다 더 운치가 있어 보인다. 경주 고속터미널에서 시청 쪽으로 500미터쯤 올라가다 왼쪽 일방도로로 접어들면 노서동 고분 아래 2층집 건물에 아담한 찾침 '마하연'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마하연'이란 이름에서 불교법새를 물씬 풍기게 한다. '마하연'은 산스크리트어 '마하야나'(Mahayana)의 음역으로 바로 '대승'을 의미하는 불교용어이다.

더구나 김형수씨는 경주 국광사의 학생회 출신이라는 귀뜸에 상호의 선택이 적지 않은 인연과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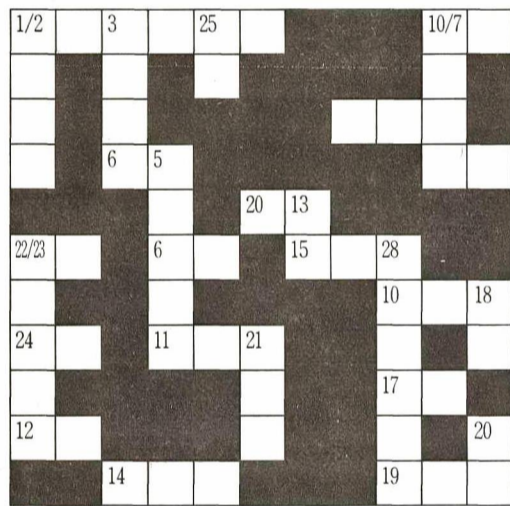
실내는 베틀에다 마차바퀴, 딸뿔, 한지의 문살창로 단장되어 있다. 관광

으로 피로해진 몸을 한참 쉬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 경주에는 전통찾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마하연'을 비롯해 4~5 군데 밖에 안된다고 주인 김형수씨는 아쉬워한다. 더구나 요즘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전통찾침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리고 이곳을 찾아오는 단골손님들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고 한다. 경주에 가면 한번 들릴만한 곳이다.

박기산기자

성녀씨는 여러장의 불교음반을 발표한 것들 비롯, 불교 관련 행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습을 보이는 등 열성적으로 음성공양을 해 왔다.

총지 퍼즐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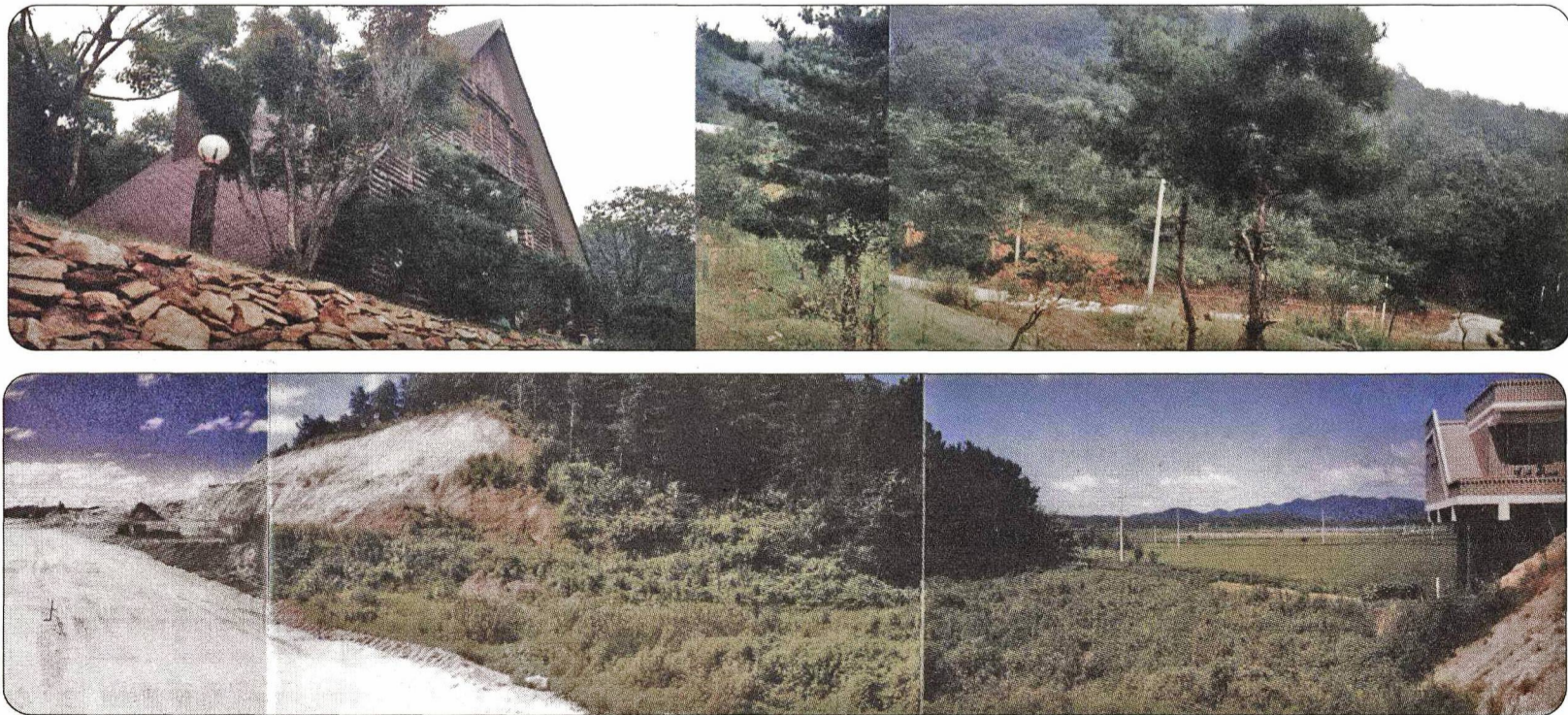
고등어** 8. 현교에 비교되는 불교 9. 밀교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10. 중생이 생전에 한 행위에 따라 저마다 가서 사는 곳.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은회. 11. 경주에 있는 절.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절. 12. 비구계를 받지 않은 어린 승려. 15. 불법을 수호하는 신. 16. 다섯가지 맛이 난다는 열매. 차를 끓여 먹으면 폐에 좋다고 함. 17. 구기의 한 가지. 2002년 월드컵. 19. 불교에서 정법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운보를 굴려 모든 악을 물리친다.전륜*. 23. 대승기신론소를 지은 신라의 고승.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 24. 열반의 적극적

가로열쇠
1. 육자대명왕진언. 4. 장자의 꿈, 버터 플라이. 6. 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반찬.

사찰, 전원주택, 교육관, 수련장, 복지회관... 청산건설팅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고민끝~!

상보에 귀의하옵고, 삼가 우리 불자님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못하지 않은 I.M.F. 한파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수도권 일원의 전원주택부지 안내와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청산건설팅 대표 안 태진입니다. 이번 국내에 뒤흔 I.M.F. 한파는 부동산 업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불황속에서 매우 우수한 상품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50%이상 싼 가격의 매물이 쏟아져 우리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만한 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지 1

-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성면 세월리
- 총평수 : 3,000평
- 지 목 : 준농림(임야)
- 특 징 : 정남향 주변에 별장 및 전원주택이 있음(전용허가를 득해줌). 계곡물이 흐르고 시야가 탁 트인 곳
- 용 도 : 교육관부지, 청소년 수련장부지, 노인복지회관부지 전원주택을 짓고 농장하시며 500평, 1,000평 단위로 매수하고 공부하실 분.
- 시 세 : I.M.F 전 → 주변시세 30만원 ~ 60만원선 분양 I.M.F 후 → 주변시세 20만원 ~ 30만원선 분양 희망가격 → 평당 10만원

부지 2

-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 총평수 : 507평
- 지 목 : 준농림(답)
- 특 징 : 현재 양평-여주간 4차선 공사중 현재 포장공사만 남아있음. 토목공사 및 평탄작업 해드림.
- 용 도 : 휴게소 및 가든자리,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는 자리. 개통후 3~4배 투자성
- 시 세 : 평당 15만원

부지 3

-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49번지 산 149-1번지 2필지 ⊙ 보종임지
- 총평수 : 4,170평(필요시 준농림 득해서 드림)
- 용 도 : 과수원, 평, 사슴 목장, 농업용도의 개발가능 4m 진입로 확보. → 급한 매물 평당 3만원

CHUNG SAN 건설팅 02)420-5474~5/011)213-4594

▶기타 문의전화 ☎ 02)420-5474-5, 011)213-459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불자님 가정에 행복된 나날을 기원 드립니다.